

중세국어 부사의 통사 특징 (I)

고 정 의

- | | |
|-------------------|--------------------|
| I. 서론 | Ⅳ. 수식관계와 수식위치의 특이성 |
| Ⅱ. 품사적 제약과 통사적 제약 | Ⅴ. 결론 |
| Ⅲ. 유의어의 통사 양상 | |

I. 서론

본고는 후기중세국어 중 15세기 국어의 부사의 통사적 특징을 기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세국어의 부사에 대한 논의로는 이충녕(1961, 1965), 이충욱(1967), 히용(1975) 등의 형태론적 연구와 이충녕(1965), 유창돈(1979), 박희석(1984) 줄고(1980) 등의 통사적 고찰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부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더구나 통사의 이론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밀한 문서적 고찰은 물론 통사적 기술도 별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고는 수식양상에서 나타나는 품사적 제약과 통사적 제약을 기술·설명하고 유의어들의 통사적 차이 및 현대국어와 다른 문장상의 위치와 수식관계를 살핀다.

부사의 수식단위에 따른 문장부사의 설정과 하위분류, 그리고 통사 의미론적 고찰은 후고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Ⅱ. 품사적 제약과 통사적 제약

Ⅱ-1 부사는 관형사, 감탄사와 더불어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품사

의 하나이다. 부사는 주로 서술어의 의미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사구를 확장할 때 선택된다. 그런데 동사구 안에서 부사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것은 피수식 품사의 제약, 피수식 단위의 제약 그리고 통사적 제약이다.¹⁾ 이 세 가지 제약 중 우리는 품사적 제약과 통사적 제약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2 품사적 제약이란 부사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의 품사에 따라 수식어인 부사가 선택되거나 수식어인 부사에 따라 피수식어의 품사가 제약되는 공기 제약을 말한다. 이러한 상호선택의 제약은 부사의 피수식어 선택자질의 차이에 말미암는 것이다. 동사구확장시 그 동사구 안에서 부사가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은 상태성이나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결국 수행하는 피수식어의 의미에 따라 수식어인 부사는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부사가 피수식어와 상호제약을 보이는 부사를 제약부사²⁾라고 한다.

- (1) a. 너희 부터 마물 코디 드르라<釋十三 47>
- b. 바르미 헛도로 부니(風回反)<杜八 29>
- c. 네 이제도 노외야 늑 피본 뜨들 돌떠<月釋六 64>
- d. 빗 病에 예 와쇼물 돌히 너기노니(舊病甘載來)<杜六 51>
- e. 슬퍼 드러 이대 思念하라<月釋八 15>
- (2) a. 새러 ㄹ몹 ㄹ히 지블 지스니(新作湖邊宅)<杜十五 24>
- b. 손소 죽디 몸하야<釋六 5>
- c. 피머 돗오몰 간대로 니르와다(妄起憎愛)<金 9>
- (3) a. 이제 또 내 아드를 드러가려 흥시노니<釋六 5>
- b. 네 업던 ㅁ술 帝釋이 일위네니<月曲 105>
- c. 光明도 하шина ㅈ 업스실씩 오늘 문 솟녀<月曲 28>
- d. 처설 佛法에 드러<釋六 1>

1) 부사와 용언의 선택관계에 따른 제약으로 유창돈(1975: 426)은 부사가 용언의 구축을 받는 것을 품사적 구축, 부사가 용언에 제약을 가하여 문장의 종결형에 구축을 보이는 것을 통사적 제약이라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통사적 제약'이란 그의 술어를 수용하기로 한다.
 2) 제약부사에 대하여는 McKay(1968)참조. 현대국어에서의 국어부사류어의 구문론적 특성에 대하여는 서경수(1975)참조.

- e. 흰 비 흐번 시스니(白雨一洗)<杜七 8>
 (4) a. 이의셔 비오고 개어놀(既雨已)<杜十六 65>
 b. 千世 우뢰 머리 定항산
 c. 마슴 비르매 일 나려오리르다(秋鳳早下來)<杜二十一 19>
 d. 부테 조르 니르샤도 從항습더 아니 항더니<釋六 10>
 e. 블써 命終하니라<月釋九 36>

위의 (1)~(4)는 동사만을 피수식으로 선택하는 부사의 몇 예를 보여주는 바, 이와같이 동사만을 피수식으로 하는 부사는 상당히 많다. (1. a~c)는 동사 혹은 형용사에 접미사 ‘이, 오, 아, 히, 에’ 등이 연결되어 파생된 양태부사들이고 (2. a~c)는 명사에 접미사 ‘터, 소, 로’가 접미되어 파생된 양태부사들로 동사만을 피수식으로 한다. 물론 모든 양태부사가 동사만을 피수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3. a~c)는 체언이 굴곡형식 없이 통사구조 속에서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여 동사만을 피수식으로 선택하는 예들이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른 통사적 구조에서 부사의 기능을 획득하는 어휘들은 시간표상의 명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시간부사로 전용되는 것이 특징적이다.³⁾ (4. a~e)는 파생부사가 아닌 부사들로서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자질이 공통적이며 반드시 후행하는 동사만을 수식한다.

- (5) a. 所依體는 두려빚 불곤 微妙호니 마스미라<月釋九 21>
 b. 萬行이 다 두려이 마자(萬行悉備)<金剛下 111>
 (6) a. 去聲은 못 노픈 소리라<訓諺>
 b. 이 마든 못 어딘 사람들파<阿彌 16>
 (7) a. 諸佛人 마재 조호 불곤 마스미시며(諸佛勝淨心)<牧牛 20>
 b. 妄念이 마재 盛커든(熾盛)<牧牛 30>
 (8) 이 法이 지극 도하니라(此法極効)<救急上 16>

(5)~(8)은 부사가 피수식으로 형용사만을 선택한 예들이다. (5)는 파생부사 ‘두려빚, 두려이’가 형용사 ‘빚-, 못-’을,⁴⁾ (6)은 정도부사 ‘못’이

3) ‘자리’를 명사로 본다면 ‘물론 자리 건너시니이다’(乘馬載流)<龍 34>에서 ‘자리’는 부사성 불워진 명사가 양태부사로 전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두려빚’의 피수식어는 주로 형용사이지만, 통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衆生佛性이 本來 두려빚 일며<月釋十七 83>

형용사 ‘일—, 어릴—’ 등, (7)은 정도부사 ‘ㄱ재’가 형용사 ‘좋—, 盛好—’를 그리고 (8)은 ‘지극’이 형용사 ‘똥’를 수식하는 경우다. 부사가 형용사 이룬마 상태동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그 상태성의 정도성이나 양태성을 환경 혹은 지시하는 것이므로 (5)–(8)의 부사들의 의미기능은 결국 이 둘 중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따라서 (5)는 양태성을 (6)–(8)은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런데 (6)의 ‘똥’은 형용사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또는 부사도 피수식어로 한다.

- (9) a. 불건 두리 도라 기리 도호니(明月生長好)(杜十五 22)
 b. 세 기리 임노라(自長吟)(杜十六 14)
- (10) a. 손뻐가라기 두리우치고 ㄱ재로치고 기프치고 꽃은 고드치고(法 14)
 b. 등은 꽃은 니르신비라(釋六 45)
- (11) a. 여러 가실 좁이 기리 아독호니(衆香深黠黯)(杜二十 13)
 b. 대 과 과 기리 신호터(月釋八 50)
- (12) a. 極樂은 그 장 즐기불비라(月釋七 63)
 b. 하늘 차하 그 장 震動호니(月曲上 21)
- (13) a. 幽隱호 占得호매 기리 隣近호니(庶近幽人占)(杜十八 2)
 b. 비 비 濟渡호호 기리 勿호면(釋十一 10)

위의 (9)–(13)은 부사가 피수식어로 동사 또는 형용사를 선택하고 있는 예이다. (9)–(11)의 (a)는 형용사를 (b)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양태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지만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12b)와 같이 정도부사가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은 흔히 정도부사는 양태부사와 함께 동사를 피수식어로 하는 “정도부사+양태부사+동사”의 수식양상을 보인다든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수식구조가 아니다.

부사가 중출할 때 우리는 어휘의 지출어에 대한 의미기능에 따라 그들을 이차어 또는 삼차어로 분류할 수 있다.⁵⁾ 예를 들면

- (14) 무스물 더 욱 신비 너기샤(月釋八 94)

여기 ‘너기샤’는 일차어, ‘절빙’는 이차어, ‘더욱’은 삼차어로 I.C 분석을

5) Jespersen(1933 : 78) 및 Jespersen(1951 : 83) 참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식양상과 서정수(1978)에서의 “저는 상당히 기다렸어요”가 “저는 상당히 오래(또는 많이)기다렸어요”라는 심층구조의 생략변형이란 견해를 고려하면 (12b)는 “하늘 차히 그장 해 震動하니”의 생략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13)의 ‘기뢰’는 같은 정도부사이면서도 형용사 ‘갓잠—’과 동사 ‘뭇—’과 공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장’과 ‘기뢰’의 이러한 차이는 이들의 의미자질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그장’은 정도부사 중 가장 높은 정도를 나타내므로 어떤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상태’의 서술을 필요로 하지만 ‘기뢰’는 동작이나 상태의 완결⁵⁾에 특히 근접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태부사를 받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15) a. 衆生을 濟渡하사되 陳如를 뭇 들서 救하사되<月曲 94>

b. 鹿野에 뭇 들서 나르사되<月曲 94>

(16) a. 月을 선 밝히 더기사<月釋八 94>

b. 네 사군이 그장 그지가 문에 昏되<四人 昏되之>(敎方上 78)

(17) a. 부티를 뭇나소오면 뭇을 至極히 더르되나<圓覆下 43>

b. 傷處] 그장 더어 알르되 아니 昏되<傷處 不皆 猛 痛>(敎方下 23)

(15)는 정도부사 ‘뭇’이 시간부사 ‘들서’를, (16)은 정도부사 ‘더욱, 그장’이 양태부사 ‘선’, ‘그장’을, (17)은 정도부사 ‘더욱, 그장’이 정도부사 ‘至極히, 뭇’을 수식함을 보여준다. (15)–(17)에서와 같이 부사가 중층하여 공기할 때의 수식 양상은 “정도부사+시간부사”, “정도부사+양태부사”, “정도부사+정도부사”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통합관계는 특히 긴밀하여 그 중간에 이들의 긴밀성을 깨뜨리는 어떤 요소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식양태는 현대국어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공기순서가 파괴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만다.

(15) a. *衆生을 濟渡하사되 陳如를 뭇 들서 救하사되

5) 카피석(1984)는 ‘기뢰’의 비수식어가 동작동사인 경우 ‘완결의 완료’, 상태동사인 경우 ‘현재의 도달’이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있다.

- b. *鹿野에 몬져 못 니르사니
- (16) a. *무스물 썰리 더욱 너기샤
- b. *베 사르미 그즈기 그장 붙어 흥면
- (17) a. *부터를 맛나수오면 至極히 더욱너드니라
- b. *傷處ì 미리 그장 알포디 아니흥면

그런데 부사가 증출할 때 선행부사가 반드시 후행부사를 수식하는 것은 아니다.

- (18) a. 이 모든 金剛菩薩藏王이 精_{ᄃᆞ}ᄃ 무스미 그즈기 썰리 더 神識_{ᄃᆞ}ᄃ 發_{ᄃᆞ}ᄃ야(陰連發彼神識)〈楞七 49〉
- b. 오직 自性이 本來 淸淨_{ᄃᆞ}ᄃ며 本來 塵勞 업서 괴오히 상네 비취논 돌 알면 (但吾自性이 本來淸淨_{ᄃᆞ}ᄃ며 本無塵勞_{ᄃᆞ}ᄃ야 寂然常照_{ᄃᆞ}ᄃ면)〈金剛 58〉
- c. 이 藥은 미리 몬져 머구디 도_{ᄃᆞ}ᄃ니라(此藥可預先合下爲妙)〈教方 88〉

(18)은 두 부사가 증출하여 하나의 피수식어를 함께 수식하는 예이다. (박희석 1984) (18a)는 양태부사 ‘그즈기’와 ‘썰리’가 동사 ‘發_{ᄃᆞ}ᄃ’를, (18b)는 양태부사 ‘괴오히’와 시간부사 ‘상네’가 동사 ‘비취_{ᄃᆞ}ᄃ’를, (18c)는 시간부사 ‘미리’와 ‘몬져’가 동사 ‘머_{ᄃᆞ}ᄃ’를 피수식어로 하고 있다.

- (19) a. 지블 通히 사괴노던 오직 沈氏니(通家惟沈氏)〈杜九 24〉
- b. 妙心을 일흥덴 오직 耳根이 못 爲頭_{ᄃᆞ}ᄃ고(楞六 78)
- (20) a. 이 如來人 못 後人 마리라(釋二十三 13)
- b. 못 처셔의 뒤 몬져 이 門 안해 드노(釋二十四 18)

(19)–(20)은 부사가 피수식어로 명사를 취한 것이다.” (19)는 ‘오직’이 명사의 서술형(19a)과 주격(19b)을 수식하고 있고, (20)은 ‘못’이 ‘後’와 ‘처셔’를 수식하고 있다.⁸⁾

II-3 그런데 15세기 국어의 부사의 수식관계가 현대국어와 다른 특이한

7) 명사수식에 대하여는 서정수(1975), 김경훈(1977) 참조. 서정수(1975)는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그 명사가 ‘상태동사+명사’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지적하였고 김경훈(1977)은 정도부사의 피수식어인 명사의 지시내용이 화자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정도차를 나타내는 명사임이 지적되었다.

8) ‘못’의 피수식어는 이 외에 관형사를 추가할 수 있다. 못 첫 華嚴과 後入法華와(楞一 4)

양상을 보이는 것이 있다.

- (21) 번뜨기 조조 누출 빛내 꾸미노라(有靚屢鮮粧)〈杜二十 37〉
- (22) 希有는 드므리 이실씨라〈法一 66〉
- (23) 門들홀 다 구디 좁겨 뵈터시니〈釋六 2〉
- (24) ㅎ다가 사르미 모디리 구지저도〈法五 70〉
- (25) 世尊入말을 깃비 너기니〈月曲 179〉
- (26) 도흔 사해 느지 나게 호리니〈月釋二十一 106〉

(21)~(26)은 파생부사 ‘빛내, 꾸미노라, 구디, 모디리, 깃비, 느지’ 등이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형용사어간에 부사화점미사 {이}가 연결된 양태부사로 현대국어에서는 {이} 대신 {게}를 점미시킴으로써 부사적 용법에 사용되는 통사적 기제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다음의 (a)와 (b)를 비교해 보자.

- (21)′ a. 번뜨기 조조 누출 빛내 꾸미노라.
b. 환하게 자주 낮을 빛나게 꾸미노라.
- (22)′ a. 希有는 드므리 이실씨라.
b. 希有는 드름게 있는 게이다.
- (23)′ a. 門들홀 다 구디 좁겨 뵈터시니
b. 門들을 다 굳게 잠가 두시었더니
- (24)′ a. ㅎ다가 사르미 모디리 구지저도
b. 만일 사람이 모질게 꾸짖어도
- (25)′ a. 世尊入말을 깃비 너기니
b. 世尊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
- (26)′ a. 도흔 사해 느지 나게 호리니
b. 좋은 땅에 늦게 나게 하리니

위의 각 (b)에서와 같이 (a)의 파생부사들은 {게} 부사형으로 대치되어 나타나다. 이와같이 15세기 국어에서 동사의 수식어로 부사형이 아닌 부사가 선택되는 「부사+동사」의 구성이 대부분이었던 수식양상은 형용사의 부사화는 기원적으로 {이}만이 소용되고⁹⁾ {게} 형은 동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유추

6) 향찰에서의 夜入(밤드리)〈處容歌〉 好支(도희)〈怨歌〉 深以(기피)〈諸轉法輪歌〉 无史(업시)〈普捨廻向歌〉 등의 존재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7) a. 무슴조조 이롤 항괴 호리라<釋九 5>
 b. 神力으로 드외의 항산 사르미라<釋六 8>
 c. 엄미요롤 버서나계 호리니<釋九 8>
 (28) a. 우리 어시 아드리 외롭고 일게 드외야<釋六 5>
 b. 教化는 마르쳐 어딜에 드외올씨라<月釋一 19>

(27)은 동사어간에 (28)은 형용사어간에 부사형어미 {괴}가 연결된 것이다. 그런데 부사형어미 {괴}는 주로 동사에 연결되고 형용사의 경우는 「-개 +드외다」의 구성에서 쓰였다. (28a)의 ‘일게’는 15세기 국어에 파생부사 ‘*이미’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교체형을 가질 수 없지만 (28b)의 ‘어딜에’는 파생부사 ‘어디리’가 존재했으므로 “어디리 드외올씨라”와 같은 구성이 가능한데도 (28b)와 같이 {괴}부사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괴}부사형+동사」구성방식은 15세기를 전후로 저서해 「부사+동사」의 구성에 대체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 (29) a. 마르쳐 사항라<分癰 9>
 b. 마르쳐 사항라<同 16>
 (30) a. 일게 부항라<同 25>
 b. 일게 사항라<同 20>

(29b)와 (30a, b)는 15세기에 「{괴}부사형+동사」의 구성이 상당히 일반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양태부사의 특이한 수직양상은 형용사를 수직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 (31) 붓 우렛 두 하디문 너두 게을이 便安항고<釋六 36>
 (32) 爲頭호 微妙호 마는 難이 암시 千億이싸 코이 워오 조항니로 그 우외음호<法二 140>
 (33) 所依體는 두려비 불호 微妙호 마스비라<月釋九 21>
 (34) 외루이 가난항닐<六祖上 21>

(31)–(33)은 파생부사 ‘게을이, 코이, 두려비, 외루이’가 형용사 ‘便安항一, 워一, 불一, 가난항一’를 수직하고 있다. 이들도 (21)–(26)의 부사

와 마찬가지로 의미상 현대국어에서 {계}부사형으로 대응된다.¹⁰⁾ (31)–(33)과 같은 수식관계는 현대국어의 개념으로는 비문법적인 구성이다.

대체로 양태부사가 용언을 수식할 때 우리는 명사화변형을 통해 양태부사를 지술어로 변형시킬 수 있다. 그러나 (31)–(33)의 ‘계은이, 고이, 두려비’는 지술어로의 변형이 불가능하다. (31)의 경우를 보자.

(35) *못 우헛 두 하늬히 便安호 것은 계으르다.

실제기(1980)에서는 이를 ‘편안호—’의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로 보았지만 위의 모든 양태부사를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박희석(1984)은 이때의 {이}가 부가화접미사가 아닌 부사형어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¹⁾ 이러한 특이한 수식양상은 앞으로의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II-4 다음으로 통사적 제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통사적 제약이란 어떤 부사들은 통사기능상 문장의 지술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어떤 성질의 문장이냐에 따라서 그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부사가 결정되고 그 지술내용에 미치는 한정관계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지술의 방식이 부사의 선택을 제약하는 선택제약으로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는 부사는 그 문장안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통사적 제약의 예를 보기로 하자.

II-4.1 부사는 그 기능이 지술어를 수식·설명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부사는 지술분에 나타나는데 그 중 어떤 부사들은 지술분 중에서도 긍정분에만 나타난다. 이처럼 긍정문맥에만 나타나는 부사를 긍정부사라고 한다. 이러한 긍정부사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¹²⁾

(36) 불신 少기 적모타(先少泥)(杜: 八)

10) (34)는 ‘외로이 가늬은다’로도 대응된다. 이렇게 양태부사가 {계}로 대응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양태부사의 의미가 어근의 일차적 의미에서 이차적 의미로 전이되는 것일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1) 박희석(1984: 65)은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출발사미기’ 항목으로 다루고자 할 때 14’ ‘외로이 가늬은다’의 ‘외로이’와 ‘외로이’가 ‘외로이’로 대응되고, {이}의 이러한 용례가 몇 개의 예에 한정되어 이러한 단정을 주저하게 함을 지적하고 있다.

12) 국어(polarity items)나 긍정문맥이나 부정문맥 중 어느 하나에서만 나타나는 어구를 가리킨다. 국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Lyons(1977)참조. 국어의 국어에 대한 것은 이진복(1977)참조.

- (37) 이피셔 비브르 먹고 즐겨호니 조슬프도다(既飽驩娛亦蕭瑟)〈杜十六 62〉
 (38) 널굽 고대 외오 아론 거시라〈楞 1 : 82〉

(36)~(38)의 ‘불셔, 이피셔, 외오’는 긍정문맥에 나타나고 부정문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불셔’와 ‘이피셔’의 이러한 통사적 특징은 이들의 의미자질이 ‘완료’의 사실을 서술하는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I-4.2 이들과는 반대로 긍정문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부정극어의 예로 우리는 다음 몇 개를 지적할 수 있다.

- (39) a. 노의 다룬 뜰 업슬서〈圓上 一의 二 19〉
 b. 圓은 滿足하며 ㅁ자 이밖과 노외야 혼 法도 업수미오〈圓上 一의 二 15〉
 (40) 能히 거슬띠 못ㅎ노닌〈楞 八 137〉
 (41) 三年이 몰 차이셔〈釋 六 4〉
 (42) 未來는 아니 옛는 劫이오〈釋 十三 50〉
 (43) 값간도 들디 아니홀썬〈釋 六 6〉
 (44) a. 니르 다오디 몰홀 전치라〈法 六 107〉
 b. 衆生 濟渡호몰 니르 혜에 ㅎ시고〈月釋 一 19〉

(39)의 ‘노의, 노외야’는 ‘更, 復’에 대응하는 부사로 부정문에 쓰이고 긍정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¹³⁾ 부정이 아닌 예로 ‘네 이제도 노외야 늙 피븐 뜨들 들떠〈月釋 6 : 64〉’와 같이 의문문에 쓰인 것은 예외적이다. (40)의 ‘거슬띠’는 동사 ‘거슬즈-’에서 파생된 부사로 부정문에만 나타난다.¹⁴⁾ (41), (42)의 ‘몰’과 ‘아니’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소로서 각각 부정문과 공거한다. (43)의 ‘값간도’는 ‘값간+도’의 구성인데 이 부사가 부정문에만 쓰이는 통사적 제약은 명사 ‘값간’에서가 아니라 ‘도’의 의미자질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¹⁵⁾ (44)는 ‘니르’가 두 가지 방식으로 부정문과 공거하고

(13) 따라서 엄밀한 의미로는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가 될 수 없다. ‘노외야’가 긍정문에도 나타나는 것이 극어로서의 약화인지 아닌지는 단정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긍정문과 부정문에서의 빈도로 보아 긍정문에서의 용례가 극히 예외적이라고 보아 부정극어에 넣었다.

14) 유창돈(1978)에서 ‘거슬띠’가 부정문에만 나타남은 지적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풀의 인 ‘거슬띠’와 ‘거슬지’가 통사적 차이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풀 ㉠ ‘거슬띠’는 부정문에만 쓰이고, ㉡ ‘거슬지’는 긍정문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 能히 거슬띠 못ㅎ노닌〈楞 8 : 137〉 값간도 거슬띠 마릅디니〈內二 二 2〉

㉡ 功名을 거슬지 하니〈杜 16 : 28〉 夫人을 거슬지호이다〈釋 11 : 33〉

15) 조사 ‘-도’의 의미에 대하여는 홍사만(1979)참조.

있음을 보여 준다. (44a)는 「니르 용언어간—디 물ᄃᆞ—」형이고 (44b)는 「문
니르 용언어간—」형이다.

II-4.3 중정국어나 부정국어로 쓰인 경우 이외에 우리는 명령문이나 청
유문 그리고 감탄문과 공기관계를 보이는 부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보이는 부사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는 명령문과만 공기관계를 보이는 부사로는 ‘어셔’ 하나를 들 수 있
다.¹⁶⁾

(45) a. 부터 어셔 드외샤 衆生을 濟渡ᄃᆞ쇼셔<月釋二 42>

b. 涅槃에 어셔 드샤 ᄃᆞ리로다<釋十三 58>

‘어셔’ 이외에 명령문에만 나타나는 부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명령
문과 특별히 긴밀한 공기제약을 나타내는 부사가 없었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문장의 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부사가 선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청유문이나 감탄문과의 공기관계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므
로 청유문이나 감탄문에만 쓰인 부사의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II-4.4 의문문에 나타나는 의문부사는 문미 곧 종결법에 나타나는 형태
(어미)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¹⁷⁾

(46) 므스므라 바미 나오노노 ᄃᆞ야<釋 六 19>

(47) 므스그라 烟霧로 드러가노노<杜 二十二 39>

(48) 발을 바샤 개 아니 알ᄃᆞ시리<月曲 19>

(49) 그 어미 무로디 배 엇베 안다<月釋 二十三 74>

(50) 聖人神力을 어노 다 ᄃᆞᄃᆞ리<龍 87>

(51) 세 버늘 請ᄃᆞ거니 어드리 아니 니르료<釋 十三 46>

(52) 이 座는 上座八座니 년기 어뜨현 안ᄃᆞ리잇고<釋 二十四 43>

(53) 如來八正法이 언제 滅ᄃᆞ리다 ᄃᆞᄃᆞ시노<釋 二十三 31>

16) ‘어셔’의 이러한 제약은 현대어에서도 동일하다.

a. 어셔 오세요
b. 어셔 먹자
c. *어셔 온다
d. *어셔 오느냐

17) 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는 나진석(1958) 이승욱(1963) 안병희(1965)참조.

(46)~(53)은 의문부사 ‘모스모라, 모스모라, 배, 엿테, 어노, 어르너, 이피선, 일깨’가 의문범이며 ‘—노, —라, —노다, —라다, —노, —고’와 호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8)~(45)에서의 통사적 제약이 이들 부사들의 통사기능에 따른 것일지 아니면 자료의 제약에서의 결과일지는 앞으로의 검토를 요한다.

Ⅲ. 유의어의 통사양상

Ⅲ-1 후기중세국어의 유의적 성분¹⁸⁾ 중 부사는 고유어와 고유어 사이의 유의적 경쟁이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에서보다 활발하였다. 그런데 이들 유의어를 이루는 부사 중 일부 부사는 통사적 차이를 나타낸다.

Ⅲ-2 중요한 부사 유의어로 다음 몇 개를 들 수 있다.

- (54) 갓길, 밧, 안길¹⁹⁾
- (55) 배; 어노, 엿테²⁰⁾
- (56) 모모베, 발누기
- (57) 할파, 불사, 이피서
- (58) 도희, 이과 (滯留)
- (59) 너막, 율리
- (60) 만리, 더
- (61) 시리, 려기
- (62) 다서, 두희(야), 가석야²¹⁾
- (63) 이루²²⁾, 지리, 나루, (能히)
- (64) 오히려, 순지

Ⅲ-3.1 유의어들이 보수적어를 선택하는 통사적 차이는 수식하는 부사의 자어에서 나타난다. (남성우 1976)

18) 후기 중세국어의 유의구조에 대하여는 남성우(1976)참조.

19) 이 중의 불공사의 경우는 ‘갓길’은 16세기경 당시의 문헌과 무지언해에 실려 쓰였으며, ‘밧’은 무지언해에는 나타나지 않고 ‘안길’은 무지언해에 처음으로 나타난다(남성우 1976).

20) ‘배’는 의류용어인, ‘어노’는 구멍, ‘엿테’는 어유의 수단을 나타낸다. 이들의 경쟁은 남성우(1976)참조.

21) ‘更亦’의 대응어는 蒙山法語에는 ‘조’만 쓰이고, ‘다시’나 ‘두희(야)’는 쓰이지 않았다.

22) ‘리’의 대응어는 桂蔣諺解에서는 ‘可히’로, 法華經諺解에서는 ‘어노’로 쓰인다.

- (65) a. ㄹ장 增萬면 八萬 회를 삼오<月釋 --- 48>
 b. 旋嵐風은 ㄹ장 미분 보문비라<釋 六 30>
 c. 威儀를 ㄹ장 격격기 꾸미고<月釋 二 73>
- (66) a. 어리 아돌 마에 못 스랑디 아니하더니<釋 二 四 11>
 b. 去聲은 못 고문 소리라<訓諺>
 c. 大梵天이 못 문저 일오<月釋 --- 38>
 d. 首楞嚴主人 못 첫 方便이 이 문하신 작문비라<楞 --- 28>
- (67) a. 驥子야 안직 너를 憐愛호노라<杜 八 48>
 b. 안직 모흔 故句를 傳하야<杜 十六 14>

(65)-(67)은 현대어 ‘가장’(最)에 대응하는 부사 ‘ㄹ장’, ‘못’, ‘안직’의 통사적 제약을 보여준다. (65)는, ‘ㄹ장’의 필수적어로 (a)통사, (b)형용사, (c)부사가 선택됨을 보여준다. (66)은 ‘못’의 필수적어는 (a)통사, (b)형용사, (c)부사, (d)관형사가 됨을 보여 주고 (67)은 ‘안직’의 필수적어로 (a)통사와 (b)형용사가 선택됨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이들은 필수적어 선택에 차이를 나타낸다.²³⁾

- (68) a. 必의 모로배 이우려사 소리 어노디<訓諺>
 b. 모로배 分明하야사 아로불 得호노디<金 139>
 c. 모로배 문저 道得고저 호노디<法 --- 240>
- (69) a. 必의 반드기 奉持하라<金序 7>
 b. 嶺山僧에 반드기 摩訶어 이치<楞 --- 17>

(68)과 (69)의 ‘모로배’와 ‘반드기’는 한자 ‘必’의 대응어로서, ‘모로배’는 (68)와 같이 필수적어로 (a)통사 (b)형용사 및 (c)부사를 선택한다. 이에 대하여 (69) ‘반드기’는 (a)통사와 (b)형용사를 선택하여, 부사의는 통합되지 아니한다.

- (70) a. 欲火를 항마 泐자<月曲 101>
 b. 西土어 항마 오라식<龜 42>

23) 박정우(1976)에 따르면 「ㄹ장」과 「못」의 필수적어가 되는 것은 「문저」, 「귀하사」, 「노라」, 「올라」, 「적라」, 「크라」 등이다.

- (71) a. 크피 가 즌 끼비 블써 이도다<釋 六 35>
 b. 블써 훈기 적도다<杜 七 8>
 (72) a. 이피서 비오고 개어늬<杜 十六 65>
 b. 도훈 菜蔬 | 이피서 훈가지 아니니<杜 十六 70>

(70)~(72)의 ‘즈파, 블써(썸), 이피서’²⁴⁾는 ‘근, 旣’에 대응하는 부사로 이들은 다같이 피수식어로 (a)동사와 (b)형용사를 선택하고있다.

III-2.2 이러한 피수식어 선택의 품사적 차이 이외에 이들 유의어들은 통사적 제약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 (73) a. 오저 어드움을 보고 누의 다론 것 보미 엇다 훈리니<楞 一 100>
 b. 쑈 누의야 誠恠 업컨마론<圓上 一의 二 122>·
 c. 엇데 누의야 輪轉이쇼물 보리오<圓上 一의 二 155>
 (74) a. 내 餘國에 부테 두의야 다시 다론 일후미 이쇼리니<圓上 一의 一 43>
 b. 누를 자마 다시 無明을 詰難²⁵⁾훈리오<圓上 二의 三 30>
 (75) 가서야 𑖀𑖄𑖅치시니라<圓上 二의 二, 2>

(73)의 ‘누의(야), 다시, 가서야’는 ‘更, 重, 復’에 대응하는 부사로 ‘누의, 누의야’는 부정문과 공기함은 앞(II-4.2)에서 보았다. 이에 반하여 ‘다시, 가서야’는 긍정문에 쓰인다. 그리고 ‘누의야’와 ‘다시’²⁵⁾는 꺅어 이외에 (73c) (74d)와 같이 의문문에도 쓰이고 있으나 ‘가서야’가 의문문에 나타나는 용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²⁶⁾

24) 이들의 빈도는 두사람해에 보면 ‘즈파’가 단연 우세하다. (빈도표는 남성우(1976)에 따름)

	즈파	블써	이피서
杜七	7	2	0
杜六	22	1	0
杜十五	6	1	0
杜十六	14	0	4

25) ‘가서야’는 주로 긍정문에만 쓰인다.

26) 이것이 통사적 기능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문리적 제약에 따른 것인가는 앞으로의 확인을 요한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 이들 유의어들은 다른 부사와의 통합관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즈’는 ‘누의야’나 ‘다시’와는 ‘쑈 누의야’<圓上一의 二 122>, ‘쑈 다시’<同二의 二 124> 등과 같이 나타났지만 ‘쑈 가서야’와 같은 용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또 ‘즈어류’<圓下一의 二 30>, ‘쑈 可히’<杜二十五 31>는 보이거나 ‘쑈 대신 ‘다시’나 ‘가서야’와 통합될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누의야 能히’<圓下一의 二 31>, ‘쑈 能히’는 보이지만 ‘가서야 能히’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통합분포의 차이가 자료의 제약에 따른 것인지는 앞으로 확인할 문제이다.

Ⅶ. 수식관계와 수식위치의 특이성

15세기 국어의 부사의 문장상의 위치와 수식관계는 현대국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사 중에는 문장구성소로서의 수식위치나 수식관계가 현대국어와는 다른 것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²⁸⁾

(76) a. 平生₇ 뜯 물 일우시니<龍 12>

b. 물 도흐니 업순씨 썩이라 흐니라<釋 13:28>

(74 a. b) 부사 ‘물’이 동사 ‘일-’과 형용사 ‘썩-’를 피수식어로 선택하고 있는 예이다. 이것은 부정사 ‘물’이 현대국어와 달리(물[-형용사])의 물[+동사, 형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피수식어 선택자질 이외에 ‘물’은 피수식어와 극히 긴밀한 관계를 보여 그들 사이에 어떤 요소도 개입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사 ‘아니’와 대조적이다.

(77) 마를 물 들게 흐시고<釋 二十三 42>

(78) 흐 疑心은 부테 아니 다시 나신가 흐고<釋 二十四 3>

(77)에서와 같이 ‘물’은 피수식어 바로 앞에 온다. 이에 대하여 ‘아니’는 (78)과 같이 중간의 명사문 ‘다시 나신’을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은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제약은 보이나 ‘아니’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물’은 피수식어와 극히 긴밀한 관계를 보여 그 사이에 다른 요소를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의 위치제약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곧 ‘물 니르’의 경우이다.

(79) a. 衆生濟渡호물 물 니르 레에 흐시고<月釋 一 19>

28) ‘계을이 便安_호고’<釋六 36>의 예는 앞 (35)의 논의 참조.

b. 내 이제 未來際 못도 못 니르 려 劫에(月釋 二:十一-18)

위의 예는 부정사 ‘못’이 ‘니르’와 함께 나타날 때 ‘니르’가 ‘못’과 시술어 사이에 개입되었음을 보여준다. ‘못 니르’는 ‘이루…못’의 의미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대국어의 부정문에서 ‘이루…못’으로 나타난다. ‘못 니르’는 ‘못’이 ‘니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니르 해’를 부정하고 있으며, 현대국어에서는 ‘이루…못’으로 도치되었음을 보여 준다.

(80) a. 그 새 아니 우노라(釋 二:四 20)

b. 모머 부더 허디 아니 후지더(月釋 一:56)

(80a)와 같이 부정사 ‘아니’는 피부정사에 실행하거나 (78b)와 같이 후행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의분문 속에 나타난 부정형식의 특이한 예가 보인다.

(81) a. 을 疑心은 부테 아니 다시 나신가 호오(釋 二:四 3)

b. 크피네 쁘디 아니 숭리를 모시다가 供養호스모려 후지느니(釋 二:三 46)

위에서 ‘아니’는 명사분 ‘다시 나신’과 ‘숭리를 모시다가 供養호스모려 후지느니’를 부정하는 후행명사분부정의 예이다.

이러한 부정형식은 15세기 국어의 부정법에서 명사분을 부정하는 경우에 부정사가 피부정사에 후행하는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대국어와는 **크**이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위와같이 명사분부정의 경우 부정사가 피부정사를 실행하는 것은 이 경우의 피부정사가 동명사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남동현, 1976) 이를 현대국어의 부정법으로 바꾼다면 명사분이 ‘아니’ 앞에 오고 ‘아니’가 서술어로 나타날 것이다. (81 a. b)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81) a'. 한 疑心은 부처께서 다시 나신 것이 아닌가 하고,

b'. 당신들의 뜻이 숭리를 모시다가 供養하오려 힘이 아님니까.

V. 결 론

단어가 문장의 기본단위로 문장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문제는 통사적 특징으로 설명된다. 부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등의 의미운용을 수식, 한정, 설명하는 기능은 부사와 피수식어 사이의 여러 관계로 나타난다.

본고는 15세기국어 부사의 이러한 분범적 통합관계를 기술·설명하였으나,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사는 피수식어의 밑주에 따라 단어수식부사와 문장수식부사로 나뉘어 진다.
2. 단어수식부사는 부사와 피수식어의 품사관계(품사적 제약)에 따라 동사수식부사, 형용사수식부사, 부사수식부사, 명사수식부사로 나뉘어 진다.
3. 동사수식부사는 주로 상대부사이고 시간부사로는 ‘때리’, ‘이리저’, ‘일’, ‘저로’, ‘볼썽’ 등이 있다.
4. 형용사수식부사는 대부분 정도부사이며 양태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특이한 수식양상도 보인다.
5. 동사·형용사수식 부사는 정도부사 중 ‘그장’, ‘거의’, 양태부사로는 ‘거리, 기피, 풀오, 두려비’ 등이 있다.
6. 부사수식은 정도부사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부사의 부사수식은 「정도부사+양태부사」, 「정도부사+정도부사」, 「정도부사+시간부사」의 수식양상을 보인다.
7. 명사수식부사로는 ‘오직’, ‘못’이 관형사수식의 경우로는 ‘못’이 보인다.
8.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중 과생부사는 모두 형용사어간에 부사화접미사가 연결된 양태부사로 현대국어의 {게}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동사의 수식어로 부사형이 아닌 부사가 선택되는 「부사+동사」의 구성을 보여 형용사의 부사화가 기원적으로 {이}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게}형은 동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유추된 것임을 시사한다.
9. 문장의 저술방식에 따라 부사는 다양로 나타나기도 한다. 양정각이로

는 ‘불서’, ‘외오’, 부정극어로는 ‘나의(야)’, ‘거슬때’, ‘값간도’ 등이 있다. 명령문에만 나타나는 부사로는 ‘어서’가 있고, 의문에 쓰이는 부사로는 ‘끄스끄라, 매, 엇매, 어노, 어드려’ 등이 있다.

10. 유의어로서의 부사는 통사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다른 부사와의 통합에서 분포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11. 문장상의 위치와 수식관계가 특이한 것으로는 ‘몰’, ‘아니’와 양태부사 ‘게을이’, ‘두터빔’, ‘고이’, ‘외루이’ 등이 있다. 특히 양태부사의 형용사수식에서 나타나는 수식관계는 현대국어와는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시범체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
- _____ (1974),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 《현대 국어 접미사 연구》 팽문사.
- 고정의(1980), 《15세기 국어의 부사연구》, 단대 석사 논문.
-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수식 연구》, 《국어연구》 37.
- 남성우(1976), 《후기중세국어의 유의 구조》, 언어와 언어학 4.
- 남동현(1976), 《국어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 박병수(1976), 《양태부사에 대하여》, 《언어》 1-1.
- 박희식(1984), 《중세국어의 부사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3.
- 시정수(1978), 《국어부사류어의 구분론적 연구》, 《국어구문론연구》, 탑출판사.
- 심재기(1980), 《부사화의 의미기능》, 《국어어휘론 (1982)》 집문당.
- 안병희(1965), 《후기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학술지》 6, 건국대.
- 유강돈(1978), 《어휘사연구》, 이우출판사.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욱(1967), 《중기국어의 부사연구》, 《단국대논문집》 1.
- 리용(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사만(1979), 《조사 「도」의 의미분석》, 《어문학》 38.

Jespersen. O(1951),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_____ (1969),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yons. J(1977), *Semantics I, II*, (Cambridge Univ. Press.)

Mckay. J.C(1968), *Some Generative rules for German Time Adverbials*, *Language* Vol. 44 No. 1

Quirk, Greenbaum, Leech(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Seminar Press.)

Sweet, H(1891), *A Modern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 Press.)